

고려인 소비쿠폰 제외… 대통령실 정책 재검토 ‘주목’

대한고려인협 “차별 반복돼” 청원
대통령실, 협회에 자료 보완 요구
전문가 “정부 기초상 검토 가능성”
1차 무산시 2차 지급 논의 기대

대한고려인협회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배제한 결정에 대해 공식 청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협회에 직접 연락해 구체적인 자료 보완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청원이 정부 정책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협회는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은 반복적 차별”이라며 “고려인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혜택이 아닌 사회 통합의 기준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그 후손인 고려인을 반복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고려인은 제외됐다. 이는 공동체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국가보안실 재외동포담당관(제2차장실)은 지난 14일 협회에 직접 연락해 청원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논의 후 재회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이는 단순 접수를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경제정책팀 직원들이 15일 북구청 사무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 TF 종합 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며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김양배 기자

넘는 이례적 대응으로, 정책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신호로 해석된다.

본보가 입수한 청원서 원본에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국가 통합의 상징성 △국제사회 기준과의 괴리 등 고려인 측이 제기한 구체적 논거가 담겼다. 특히 ‘법은 동포로 인정하면서 행정은 외국인으로 대우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는 표현이 핵심 주장으로 포함됐다.

성공회대의 모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이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는 점은 정

책 방향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지난해 말 재외동포청이 국내 체류 동포 처우 개선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사례가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은 재외동포 외에도 단기체류자·일부 미등록 체류자 등이 있고,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된 상태다. 다만 이미 추경이 마무리되고 1차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재외동포가 당장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

이정락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대표는 “고려인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좌시하지 않을 사안”이라며 “다만 실제 지급까지는 예산·행정 절차의 장벽이 있어, 2차 지급 등에서 보완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소비쿠폰 지급계획에 따르면,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을 거쳐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 기준은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되고 있어, 고려인을 비롯한 배제 집단의 포함 여부가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은 “고려인은 수년간 국내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거주 고려인의 80% 이상이 재외 동포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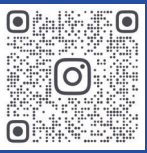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 정책국 관계자는 “기존 정책은 해외 동포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국내 체류 동포의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신규 사업도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내 동포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 통합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인 약 4800명이 거주하는 광주 고려인마을이 위치한 광산구의회는 16일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고려인 동포를 배려하고 포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공식 촉구 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광산구의회는 “고려인은 단순한 외국인인 아니라 역사적·심리적 국민”이라며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양식어가 고수온 피해 ‘눈덩이’

☞1면서 계속 한편 전남도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과 동시에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 취약지역 17개소에 현장 대응반을 배치했다. 전남도는 특보 해제 시까지 먹이공급 중단, 액화산소 공급 등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일보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피해 위험 분산을 위한 긴급 방류와 조기출하 정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공동으로 구성된 ‘조기출하 상생협의체’도 출범했다. 오는 9월까지 15억원 규모의 소비촉진 행사를 열고, 긴급 방류에 참여한 어가에는 최대 5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상 수온에 대비한 출하·방류 대상은 9632만 마리, 5902톤에 달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물과장은 “지난해 큰 피해를 겪은 만큼, 올해는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고수온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먹이 공급 중단, 조기출하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준수해 피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폭염 대책 추진 상황 점검 취약계층 요금 감면 한도 확대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kWh 이상에서 451kWh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이노트릭스(이하 “갑”이라한다)는 2025년 7월 15일, 주식회사 아이엔아이티데이터시스템(이하 “을”이라한다)는 같은 달 15일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내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또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6일
“갑” 주식회사 이노트릭스 (200111-0392682)
전라남도 나주시 삼아2길 7, 202호, 203호, 제비동 1311호, 1312호, 1313호(빛가람동, 중흥에-클래스메가타운1차)
대표이사 이재남
“을” 주식회사 아이엔아이티데이터시스템 ((110111-34428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75, 7층 (양재동, 유로빌딩)
사내이사 윤인석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이노트릭스(이하 “갑”이라한다)는 2025년 7월 15일, 주식회사 아이엔아이티데이터시스템(이하 “을”이라한다)는 같은 달 15일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내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또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6일
“갑” 주식회사 이노트릭스 (200111-0392682)
전라남도 나주시 삼아2길 7, 202호, 203호, 제비동 1311호, 1312호, 1313호(빛가람동, 중흥에-클래스메가타운1차)
대표이사 이재남
“을” 주식회사 아이엔아이티데이터시스템 ((110111-34428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75, 7층 (양재동, 유로빌딩)
사내이사 윤인석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징통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역	구례
인원	1명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수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촬영 편집

스포츠촬영 / 축제 / 산업현장 / 호텔 / 펜션
학교 / 부동산광고 · 분양 / 지적도
선박특수촬영 / 생산시설 / 양식장
아파트 / 교회
웨딩 / 이벤트 / (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두주자

티켓마루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예매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1588-0766